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에 존재하는 주체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의식적 구조가 전제된다는 구조주의와 달리,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은 주체의 의식에 집중하여 의식이 경험한 현상에서 보편적인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주체의 의식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피아제의 구조주의와 차이점을 가진다.

피아제의 구조주의는, **구조**가 발달한다면 전체성과 변환, 자기조절의 성질을 지니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전체성이란 구조가 단순한 요소의 집합이 아닌, 집합 내부의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가령, 의식 내부에 발달하지 못한 구조를 가진 아이에게 세계에 존재하는 A, B, C라는 물체를 경험했다고 하자. 물체의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다. 이 아이는 B가 A보다 작고 C가 B보다 작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통해 C가 A보다 작다는 관계는 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환은 구조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조절은 구조가 외부 존재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주체 스스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면, 이 또한 구조 내부에 의해 해석된다고 본다. 즉, 새로운 정보 또한 구조 내부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동화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구조에서 해석되지 않는다면 기존 구조를 변환하는 조절 과정을 거친다. 또한 구조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진다고도 말한다. 즉, 새로운 정보를 기존 구조에 동화하려고만 하지 않으며 동시에 기존 구조를 변환하려고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아제는 세계에 존재하는 주체가 겪는 경험을 구조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현상학을 제시한 후설은 주체의 의식에 주어지는 경험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상들이 주체의 의식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의미는 경험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주체의 선입견 없이 의식에 주어진 방식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의식이 항상 '어떠한 대상'을 향하는 지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주체는 판단중지, 환원, 본질 직관을 통해 현상을 탐구한다. 판단중지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으로, 현상이 주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환원은 의식이 내린 결론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 주체에게 경험되는 방식만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중지와 환원을 통해 의식이 경험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본질 직관을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들이 가진 공통적인 구조를 주체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능력 발달을 탐구하고자 한 피아제의 구조주의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후설에 의하면 주체가 경험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중지와 환원이 필

연적이다. 그러나 피아제는 경험을 판단하기 이전에 '세계는 존재한다'와 같은 전제를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는 이미 경험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에, ㉠ 현상학을 통해서도 피아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아제의 구조주의는 주체가 갖는 의식적 구조에서부터 경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 ② 피아제가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체에 해당하는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피아제는 어떠한 개념이 주체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조절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④ 후설은 구조의 파악을 종착점으로 제시한 데에서 피아제와 대비된다.
- ⑤ 후설은 경험이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를 주체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2. **구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아제에 의하면 A가 B보다 무겁고 B가 C보다 무겁다는 관계를 바탕으로 A는 C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구조는 의식 내부에 존재한다.
- ② 피아제에 의하면 구조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동화를 겪거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 ③ 피아제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가 구조 내부의 관계에 의해 해석된다면 이는 조절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④ 후설에 의하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단중지가 일어난 이후 본질 직관이 곧바로 일어나선 안된다.
- ⑤ 후설에 의하면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생각이 반영돼선 안된다.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 내부에 발달하지 못한 상태의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설정한 전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해당 전제에는 의식이 가진 선입견이 제거되어 경험에 대한 판단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 ③ 경험의 판단 이전에 전제를 설정하여 경험의 본질이 갖는 공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인간의 인지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 ⑤ 구조 이론이 구조의 변화를 설명한 과정에서 도입한 전제가 환원을 통해 부정되기 때문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실험에 참가한 A가 ‘네 발로 걷는 로봇’을 보고 이를 개로 이해했다. 그러나 해당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개와는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여겼다.

한편 A는 ‘하늘을 나는 로봇’을 보고, 처음에는 이를 새로 이해했으나 이후 해당 로봇이 자신이 처음에 봤던 네 발로 기어다니는 로봇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포착한 이후로 두 로봇의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하는 데에 성공했다.

- ① 피아제에 의하면, A가 ‘네 발로 걷는 로봇’을 보고 이를 개로 이해한 것은 변환 과정을 거친 것이겠군.
- ② 피아제에 의하면, A가 ‘네 발로 걷는 로봇’을 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여긴 것은 구조가 균형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겠군.
- ③ 후설에 의하면, A가 ‘네 발로 걷는 로봇’을 다른 무언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진 구조를 파악했겠군.
- ④ 후설에 의하면, A가 ‘하늘을 나는 로봇’을 새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환원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겠군.
- ⑤ 후설에 의하면, A가 ‘두 로봇’의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구조를 통해 경험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답: 순서대로 3 2 5 4.